

# 【국 어 25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1-2】

①저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리었다. 그 틈에 끼여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 소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고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헛소리다. 필연코 요년이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잡아 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 다 씹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펑 쏟아졌다. 나뭇지게도 놀 새 없이 그대로 내 동맹이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뺄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네에서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격실 격실히 일 잘 하고 얼굴 예쁜 계집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었었다. 닭은 폭 었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 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흘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영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나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터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뒷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펑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절하였다.

【문 1】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 의한 사회 의식이 드러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문 2】 이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녀의 순박한 사랑
- ② 사회 계층의 위화감
- ③ 향토적 서정성
- ④ 해학적 어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3-4】

【가】 ㉠江江湖호에 病병이 겁퍼 竹죽林림의 누엇더니, 關關東東 八팔百百 畝畝 리니에 方방面面을 맞디시니, 어와 聖聖恩은이야 가디록 罔罔 極極극하다. 延延秋秋 秋秋門門 드리드라 慶慶會會 南南門門 必必라보며, 下下直直 直直과 泯泯나니 玉玉節節이 알피 섰다. 平平丘丘 丘丘驛驛 驛驛 을 그라 黑黑水水 水水로 도라드니, 蟾蟾江江 江江은 어디메오, 雉雉岳岳 岳岳이 여기로다.

【나】 ㉡紅紅塵塵(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흔고. 넷 사름 風流(풍류)를 미줄가 밋 미줄가.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山林(산림)에 못쳐 이셔 至樂(지락)을 므를 것가. 數間茅屋(수간모옥)을 碧溪水(벽계수) 擘擘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풍월주인) 되여서라.

【다】 草木(조목) 다 진 후의 江山(강산)이 미물커늘 造物(조물)리 현스호야 氷雪(빙설)로 꾸며 내니 瓊宮瑤臺(경궁요대)와 ㉢玉海銀山(옥해은산)이 眼底(안저)의 버러세라. 乾坤(건곤)도 가음열사 간 대마다 경이로다.

【라】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恨恨 緣緣分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平平生生에 願願원호호더 恨恨네자 호앗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엇그제 님을 피셔 廣廣寒寒 殿殿의 울났더니, 그 더디 엇디호야 ㉤下下 下下界界에 느려오니, 올 적의 비슨 머리 얼키연 디 三三 三三 年年年이라.

【문 3】 ㉠의 시적 자아가 추구하는 삶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十年(십 년)을 經營(경영)호야 草廬三間(초려삼간) 지어 니니, 나 혼 간 둘 혼 간에 靑風(청풍) 혼 간 맞져 두고, 江山(강산)은 드릴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② 간 밤에 우던 여홀 슬피 우러 지내어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우리 보내도다. 저 물이 거스리 흐르고져 나도 우러 네리라.
- ③ 눈 마자 휘어진 대를 뒤라셔 굽다턴고, 구불 節(절)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歲寒孤節(세한 고절)은 너뿐인가 호노라.
- ④ 대초 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뜻드르며, 버 뵈 그르헤 게는 어이 느리논고. 술 너자 체 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문 4】 조선시대 사대부 가사 문학의 효시가 되는 작품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문 5】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말은 미쁘게 하고, 행실은 착실히 하며 삼가라.
- ②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 ③ 휴가 기간 동안에 일광욕을 실컷 했다.
- ④ 순회는 남편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6-7】

언어는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만약에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사 소통이 어려워진다. 글을 쓰는 데 꼭 지켜야 할 표기의 규칙은 주로 어법과 관계된 것들이다. 단어의 표기를 바르게 하고, 문장을 문법에 맞게 쓰는 일이 그것이다. 끝, 띄어쓰기와 ㉠철자법에 맞게 하고, 문장 부호를 맞게 쓰고, 문법적인 문장을 쓰며, 문단을 시작할 때는 한 글자 들어 쓰는 등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표기의 규칙이다. 이러한 표기의 규칙에 어긋나면 그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어렵다. 그러나 표기의 규칙이 고정 불변의 법칙은 아니다. ㉡특별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일부러 지키지 않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규칙을 지켜서 글을 써야만 글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규칙을 익혀서 바르게 글을 쓰려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문 6】 다음 밑줄 친 낱말 중,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수의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쓸 때는 주관적인 표현을 삼가며, 특정 독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용어 등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 ② 나는 하룻길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갔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도서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소장된 도서가 많음에 놀랐다.
- ③ 네 소원이 무엇이나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 ④ 지난 여름에 등반대회에 참가했다. 그런데 한라산은 가파라서 보통 사람은 오르기 어려운 산이었다.

【문 7】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에서
- ②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웁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 장만영, <달·포도·일사귀>에서
- ③ 새악시 불에 떠오른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에서
- ④ 깊은 생각은 아득이는데  
저 바람에 새가 슬피 운다.  
- 김억, <봄은 간다>에서

【문 8】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발음으로 옳은 것은?

- ① 날씨는 마치 최점수의 출옥을 축복이라도 하는 듯 맑다[말따].
- ② 오지랖이 넓다[닐따].
- ③ 보호 받을 값어치[갑서치]가 없는 인권은 없다.
- ④ 늪지[늘찌] 많은 사람은 없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9-10】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참아 이 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문 9】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아의 대립에 의한 갈등 구조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보식 구성
- ③ 눈과 매화의 대조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표현
- ④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

【문 10】 다음 보기 시의 ㉡ ~ ㉣ 중, 위 시의 밑줄 친 ㉠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① ㉡                      ② ㉢                      ③ ㉣                      ④ ㉣

【문 11】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성어는?

말하기를 위한 인체 기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성대(聲帶)이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물학적 기관은 오로지 발성(發聲)을 하기 위해서만 존재할 뿐, 다른 기능은 담당하고 있지 않다. 소리를 낼 수 있는 동물은 많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대와 유사한 구조의 발성 기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입술, 혀, 목구멍, 코 등의 주기능이 무엇이나 하는 점을 두고서는 흑시(     )이(가) 가능할지 몰라도, 성대에 관해서만은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 ① 건강부회(牽強附會)                      ② 자가당착(自家撞着)
- ③ 설왕설래(說往說來)                      ④ 아전인수(我田引水)



【문18】 다음 글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 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친친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 쪽으로 비켜 서면서 길을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떼를 쫓을 때처럼

“쉬이! 쉬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늘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오는 기다란 그것을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위리란 놈이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 가는 소리로 짚어 대고 있었다.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리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다.

“쉬이! 쉬어이!”

외할머니의 흰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 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발 성혀서 먼 길을 편안히 가소. 뒷일은 아모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소. 증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히 돌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구네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이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훌쩍한 불교량을 타고 베갯잇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 오도록 아버지한테 당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 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짹 떴었다.

“사분도 별시런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 ① 이테올로지 대립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샤머니즘이라는 미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해.
- ② 두 할머니가 다 같이 가지게 된 피해자로서의 '한'이 갈등 해소에 중요한 몫을 하는 것 같아.
- ③ 이념의 대립이 인간에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지.
- ④ 이 글은 소설의 전개 과정상 '위기'에 속해.

【문19】 다음의 내용이 범하고 있는 오류의 종류는?

운동주와 송몽규는 독립 운동을 한 혐의로 일경에게 체포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 중, 운동주는 1945년 2월 16일에, 송몽규는 같은 해 3월 10일에 각기 옥사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당시에 투옥된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독립 운동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 ① 과도된 생생함의 오류
- ② 편향된 통계 자료의 오류
- ③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 ④ 태만한 귀납의 오류

【문20】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선택이 적절한 것은?

- ① 가족 인사로 약혼식을 갈음한다.
- ② 우정과 사랑은 서로 틀린 거야.
- ③ 그는 몇일이나 출장을 다녀왔지?
- ④ 장금은 마당에서 약을 다린다.

【문21】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 ① 김과장님, 잠깐 들어오시겠습니까?
- ② 그녀 만큼만 예쁘다면 얼마나 좋을까?
- ③ 안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 ④ 30여년 간 그토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문22】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전기에는 모음조화 현상이 문란하였으나 후기에는 잘 지켜졌다.
- ② 된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 ③ 성조가 있었으나 전기에는 방점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④ 앞 시기에 비하여 고유어의 쓰임이 증가하였다.

【문23】 다음 한자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 ① 피카소의 그림을 感想하다.
- ②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寫實이다.
- ③ 할아버지께서 運命하셨습니다.
- ④ 순회는 현대 미술에 대한 造詣가 깊다.

【문24】 글을 쓸 때 자신의 논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제’, ‘논거’, ‘예시’의 3요소가 모두 갖추어진 구성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 중 이러한 구성에 해당되지 않은 글은?

- ① 우리가 진정한 21세기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민족의 과업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민족의 통일 없이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구가한다 할지라도 민족혼은 야위어 결국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통일을 서두르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통일을 이루는 일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을 영구히 보전하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의 통일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 ②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일탈 행위에는 사회의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 개인은 그가 목표로 하는 가치를 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루기 어려울 때 일탈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개인의 희망을 구조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회일수록 일탈 행위가 늘어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 경우 일탈 행위의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책 실패나 경기 악화로 인해 실업률이 높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청년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 ③ 가상현실의 가장 큰 강점은 안전한 시행착오를 통해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반복적으로 먼저 경험하면서 실제 현실에 낮은 비용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현실은 가령 현실 세계에서 겪기에는 위험한 수술, 운전, 전투 등을 모의적으로 재구성해 줌으로써 실제 수술, 운전, 전투에 대비할 수 있는 효용을 제공한다. 이렇게 현실과 유사하게 합성된 환경은 우리가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써 현실에서의 실패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사회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개인 삶의 소모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④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의 많은 국면에서 민중은 부당한 정부에 저항해 왔으며, 이를 감안할 때 민중을 수동적인 존재로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문25】 ㉠ ~ ㉢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체, 입체, 공간, 움직임, ……  
 여러 개의 선을 그어 몸을 나누어 보고 다시 잇대어 ㉠연장시키기도 하면서 적절한 인체의 형과 선을 찾으며 생각해 보는 ㉡단어들이다.  
 ㉢우리 자신인 인체는 오랜 습관으로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라기보다는 시각적 구조물로서 ㉣간주되고 있다.

- ① ㉠은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다.
- ② ㉡의 주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었다.
- ③ ㉢은 의미가 중복되었다.
- ④ ㉣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